

# 사회적 가치를 위한 부산은행의 다문화가족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권영은  
(동아대학교)

## 《 목 차 》

1. 서론
2.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문화가족 금융교육의 이해
  - 2.1. 사회적 가치 개념
  - 2.2. 다문화가족의 금융교육 이해
3. 부산은행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문화가족 금융교육
  - 3.1.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4. 결론

### <Abstract>

**Kwon, young-eun, 2021. 10. 20.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Activation of Financial Education for Social Values : A case Study of Busan Bank.**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9, 27-48. This study is focused on financi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n society,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creasing by gradation. But they might be locked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with a low standard of living due to the shortage of financial knowledge and social maladjustment caused by the rapid change of the financial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글로벌다문화전공 박사과정

market. For economic stability of individuals, social welfare and well-being of the country, it is urgently required to implement financial education for enhancing financial literacy of the weak and the vulnerable.

This study analyzed program management, educational contents by examining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of developed countries for the immigrants, which governments, banks and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run. Currently, Korean government is providing financial education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so compare Korean financial education with financial education of advanced countries for the immigran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e orientation of financial education, which Korea must activate, was suggested. **(Donga University)**

**[Key words]** Financi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value, BNK Busan Bank

## 1. 서론

글로벌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은 다양한 외국인이 각각의 유형으로 장기거주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거주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또한 기존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 보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면의 교육이 요구된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 등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 거주화에 따른 경제적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국민됨을 전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sup>1)</sup>의 소비 행동 및 실태 조사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은 한국에서 소비와 관련한 생활 방면에

서 힘들었던 점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싶어 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관련 교육을 통해 소비생활의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안, 즉 적합한 소비의 가치 및 문화 습득 방법들이 소비와 관련된 행동으로 연계된다는 점이다(박혜영 외, 2014).

한국에도 사회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경제활동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 다문화가정 중의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극빈가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상당수에 해당한다(조현상, 2016).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다문화인구는 약 2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에 비해 감소한 추세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추세에 따른 변화에 맞춰 금융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자칫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고 자녀교육을 포기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가난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으로 부산은행의 금융교육 특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 인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은행이 금융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의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부산은행의 사회적 가치가 효과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1)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에게 ‘결혼이민자’ 법무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 따라 용어를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결혼이민자), 교육부(다문화가정), 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다(한건수, 2006; 박서정, 2019).

## 2.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문화가족 금융교육의 이해

### 2.1. 사회적 가치 개념

사회적 가치의 의미는 사회적(Social)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선호도를 어떤 대상에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가치(Value)가 결합된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개인적인 편리함과 이익에 대한 관심 및 요구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방향성을 두는 것이다. 이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지향 가치 또는 공동체 지향 가치라고 접근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개인적 가치를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를 지향하는 단체의 참여 활동으로 개인보다 대중관계에 근거한다(Winter, 1997; 김준기, 2006)는 상호성이 발휘되어 사회구성원은 개인보다는 상호성과 연대성을 발휘시켜, 사회적 가치를 공유 및 확산하는데 기여한다(김미원·김정옥, 2010). 가치에 대한 논의로 정성모(2015)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디자인융합과 예술 프로그램의 중요하거나 목적을 갖는 이라는 뜻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그 개념을 대체적으로 다시 정의하지 않고 경제학에 가까운 적용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 사회 내에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대부분 사용한다. 경제학 용어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연구는 효용 혹은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Schmdar, S. W.(1997)는 효용(utility)의 개념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가치를 개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상호간의 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적 측정 가치라고 강조하였다.

Schwartz(1997)는 사회적 가치를 가치와 동의어로 정의하였으며, 가치가 가지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이며, 그래서 공동체 의존적

인 성격을 지니므로 가치를 사회적 가치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자본과 단체참여의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가치가 개인적인 편익이나 성취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사회구성원 및 공동체의 편익이 귀속되며, 협조적 상호간 관계를 지향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가치관이라고 강조하였다(이미숙·최외출, 2011).

강순화(2015)는 사회적 가치는 어떤 지역 내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신념체계로 개인적인 편익에 관한 관심 및 요구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중요한 생각에 관심을 두거나 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표 1 사회적 가치에 관한 개념>**

연구자	개념
Walzer (1983)	가치는 어떤 공동체가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에 따라 가치는 사회적 가치로써 유사어로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
김진현 (2000)	도시의 역사적 문화공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것을 사회적 가치로 설정
Lynch et al.(2008)	지역사회 내의 가치의 창출이 사회적 가치라고 언급
이미숙·최외출 (2011)	사적인 편익이 성취 욕구를 넘어서 사회구성원들과 공동체 편익의 귀속으로 상호 협력적 관계를 지향에 목적을 두는 가치관

강순화(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정리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어떤 사회에 관계되고 있는 것과 어떤 사회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의 총칭이다. 가치의 의미는 어떠한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의 대상을 말한다. 가치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행위의 바람직한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을 지닌 구체적 사물 및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가치에는 본래적 가치, 도구적 가치, 정신적인 가치, 물질적 가치를 들 수 있다.

본래적 가치라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목적으로 추구되는 가치이며, 도구적 가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치이다. 물질적 가치는 자동차, 주택, 음식, 현금 등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물질에 대한 유용 가치로 경제적 가치에 속한다. 정신적인 가치는 지적 가치, 도덕적 가치, 미적 가치, 종교적 가치이다.

가치는 상호 교차하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러한 유형은 가치 기준의 규정에 따라 양립적인 유형으로 비교적 차이를 통해 더욱 자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치 실행의 행동 규범과 관련된 평가에 의한 구분은 윤리적 가치로 구분된다. 추구하는 평가의 관점에 따라 미적 가치 및 종교적 가치로 구분된다. 추구 및 가치를 두는 대상으로 부유함, 미적임, 지식, 쾌락에 따라 구별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가치 구분하는 유형으로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주된 내재적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써 외재적 가치로 구분된다.

사회적 가치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대상인 도구적 가치가 된다. 좋아하는 것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물질적 가치가 되며, 옳은 행동의 기준이 되는 본래적 가치가 된다. 뜻이 있고 활력있는 삶의 기준이면서 문제 상황에서 판단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가치가 된다.

이와 같이 자명하고 이중적인 유형의 구분을 부정한다거나 연속 및 상관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가치 구분 유형이 존재한다. 그리고 윤리적 측면 및 도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효용과 양적 가치의 계측 및 계량에 의한 비교 주장 유형이 있다. 또한 특정 기준과 척도에 의한 가치의 양적 비교를 부정하여 질적 차이만을 인정하는 가치의 유형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표 2 사회적 가치에 관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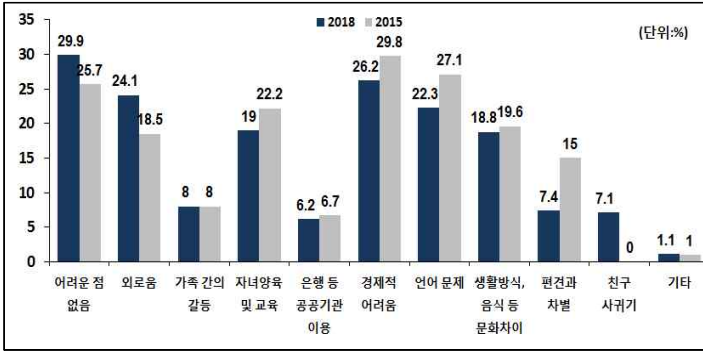
가치기준		내용	디자인 유형
사회적 가치	사회 중시	사회구성원의 편의와 사회발전에 공헌	보이스피싱 금융교육, 서비스 금융교육, 적정 금융교육
	인간 중시	소외되었으나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들을 위함	유니버설 금융교육, 인클루시브 금융교육, BOP(Bottom of Pyramid)를 위한 금융교육

## 2.2. 다문화가족의 금융교육 이해

다문화가족의 신용카드 유무에 대한 실태와 관련한 조사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다문화가족 56.1%가 카드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녹색소비자연대, 2010). 다문화가족은 개인의 고향과 문화 및 제도 등으로 야기되는 현금 사용, 다른 나라의 화폐 단위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또한 한국의 은행업무와 관련된 일을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개인이 목적에 적합한 은행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 목적에 알맞은 은행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저축, 송금 등 은행 상품을 어떻게 잘 선택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에 관한 정보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로 한국에서 생활할 때 어려운 부분이 은행,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6.2%를 차지하였다(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출처: 여성가족부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그림 1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

다문화가족의 매월 평균 임금이 약 200~3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20.0%, 300만 원 이상은 비교적 낮은 수치로 8.9%, 그리고 임금 100만 원 이하는 15.8%, 임금과 보수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6.6%를 차지하였다. 2018년 조사결과를 2015년 조사결과에서 비교하면 150만원 미만 소득층은 감소하였으며, 150만 원 이상 소득층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350만 원 이상 소득층의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8).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다문화가족의 경제 수준은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2020)의 조사에서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은 대부분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온라인 학습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인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된 금융교육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미운영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3. 부산은행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문화가족 금융교육

#### 3.1.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최근 전 세계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조어도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COVID-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비대면 관련 다양한 신조어들이 탄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택트이며, ‘Un’과 ‘Contact’의 합성어로 초기 COVID-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는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 금융 등에서 붐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최윤정 외(2020)는 이러한 현상을 넥스트 노멀 시대가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임현(2020)은 디지털로의 전환 불가피하며, 이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과거에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많은 지원 프로그램<sup>2)</sup>이 운

- 
- 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농촌, 도서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한국어 및 한국사회를 신속하게 적응시키고자 조금씩 온라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신속히 익힘과 동시에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 재한외국인 대상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며, 이를 모두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적극적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세 번째, 이민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정책 개발 및 세부지원 항목을 발굴하여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한다(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http://www.socinet.go.kr)).

영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는 데에 있어서 가속화를 앞당겼다. 특히 금융서비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금융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측면에서 실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실태조사로는 3년마다 조사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는 금융교육은 미비하며,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교육은 한국의 청소년 및 일반인 교육에 치우치고 있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부산지역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에 대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접근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의 금융 생활과 금융교육 실태를 보면 소득이 적고 빈곤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낮은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교육이 시행되기는 하나 대부분 일회성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교육내용을 가진 단기 행사에 머무르고 있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20). 현재 한국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이 한정적이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개설되고 있는 인터넷 강좌 금융교육은 일반 내국인 성인강좌에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은 인터넷 사용이 한국어 구사 부족 등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교육에 대한 비대면 강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부산광역시는 2009년부터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회원사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국제금융박람회를 공동주관 하는 등 국내 및 국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특강을 세부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다. BNK 부산은행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과 울산지역의 금융박

물관으로서는 최초로 금융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을 중심으로 금융과 경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역사관을 건립하였다. 금융역사관은 역사관, 홍보관, 금융·경제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은행의 과거 모습을 볼 수 있는 물품을 전시하고 첨단매체의 활용으로 과거와 현대를 모두 관람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금융역사관에서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요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BNK 금융그룹).

**<표 3 부산은행 행복한 금융교육>**

분류	내용
방문 교육	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올바른 직업관 정립과 경제에 대한 금융상식 함양을 목적으로 교육현장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임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등
초청 교육	금융역사관, 기장연수원으로 초청하여 역사관 관람과 진로체험 금융교육임
	대상 :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경제금융 캠프	금융에 대한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체험형 금융교육임
	대상 : 초, 중학생
금융역사관 전시관람	영상 및 패널, 모형 등 다양한 매체로 금융교육 실시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출처: 부산은행 홈페이지

부산은행 금융역사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 및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행복한 BNK). 그러나 위의 <표 3>은 BNK 부산은행 행복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체험형 및 단기성에 주로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금융교육의 특성에 있어서 체험형 및 단기성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금융교육이 미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단기 프로그램이든 장기 프로그램이든 금융교육 대

상자들 따라 금융목표에 적절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문화가족과의 관련성은 다문화가정이 경제금융 캠프 내용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부산은행은 이와 같은 금융교육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은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 들면 2016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부산은행의 금융교육 포토 갤러리에서 금융교육 사진목록 119개 중 취약계층으로는 장애인 금융교육이 7건에 해당되었다. 즉 다문화가족 금융교육 사진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부산지역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공교육 진입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은 두 가지 정체성, 즉 이중언어구사 정체성, 두 문화 이상 경험 정체성으로 통번역, 다문화강사 등 전문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증가는 다문화가족이 금융교육 대상자이면서 한편으로는 금융교육을 다른 대상자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서 성장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역 다문화가족의 출신국가, 연령 등 및 부산지역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대면 및 비대면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이 낳고 COVID-19로 촉발된 비대면 현상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빠르게 확산 되고 있는데 금융, 교육, 문화 및 사무 등 거의 모든 일상 영역에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임현, 2020). 교육 부분에서는 원격교육과 특수교육이 활용분야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zSpace를 들 수 있다.<sup>3)</sup> 금융 영역 비대면 서비스 활용은 주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핀테크<sup>4)</sup>에서 활용

---

3) zSpace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사를 둔 기술 회사로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의 요소를 컴퓨터에 결합한다. zSpace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가상 환경에서 실제처럼 시뮬레이션 된 개체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4)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이다.

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카카오뱅크를 들 수 있다(배영임 외, 2020).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은 주로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거나 금융기관 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BNK 부산은행의 금융교육은 금융박물관 건립이 지방 최초로 방문 금융교육 및 체험 금융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문화가족형 눈높이 금융교육은 여전히 미흡하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위드코로나 현재까지 비대면 금융교육은 이와 같이 미진하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소수자이면서 취약계층이 많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표준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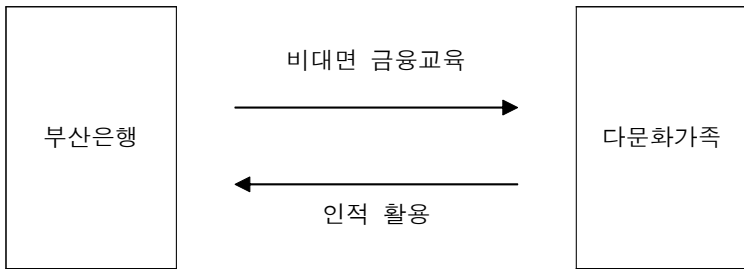
2014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로는 다른 구성원보다 다문화가족이 금융이해력에서는 낮게 나타난다고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2015년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금융교육이 논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2018년 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다문화가족이 금융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다문화가족의 특징을 중점으로 금융포용 측면의 접근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 금융권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요구된다. 금융교육 비대면 서비스를 수많은 연결된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 어떠한 시간, 장소, 대상과도 연결되고, 또한 어떠한 경로 또는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것을 말한다. 나아가 만물인터넷(Theinternet of everything)이라는 용어도 최근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기술 등을 연결하는 접근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의 인지 기술에

---

핀테크는 기존의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획기적인 효율화 및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의미한다.

의한 비인간 행위자 역시 시공간 및 지식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행위자들의 프랙티스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Mele et al. 2018). 비대면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스마트기술, 즉 인지 기술은 시스템 전체의 가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시스템의 사회적 배열과 제도적 구조의 진화를 촉진한다. 비대면 서비스에서 사람-기계 또는 기계-기계 상호작용(man to machine or machine to machine interaction)에 의해 가능한 연결의 고도화는 새로운 기회를 창조할 수 있다(조호현, 2020). 이는 화합(asmblage)로서의 비대면 서비스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은행의 비대면 서비스를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화합(asmblage)으로 새롭게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시적-기술 결정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림 2 부산은행과 다문화가족의 관계망>

다문화가족의 금융생활 및 금융교육 실태에서 살펴본 바, 소득이 비교적 적고 빈곤율이 다소 높아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부산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하였다.

다문화 금융교육에서 미국은 1990년대부터 금융교육을 시작했다. 미국은 금융 소외계층 문제가 대두되자 오바마 정부 시기 2010

년에 금융이해력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를 출범시켰다.<sup>5)</sup> 2003년 법률에 의해 미국은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기 전에 민간부문에서 금융교육을 추진해왔다. 1990년대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금융교육 민간부문 참여에서부터 성인에 대한 금융교육까지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제공되었다.<sup>6)</sup>

**<표 4 미국의 금융교육 성공요소>**

내용	- 교육대상의 언어, 문화, 연령, 경험 등을 고려한 맞춤 교육
사회적 가치 효과	-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생의 태도, 지식, 행동 등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를 입증

출처: 방혜영(2010)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 재구성

금융교육은 주로 소비자의 재무관리에 대한 역량을 정의한 김정현(2013)의 연구와 특정 교육 집단과 특정 금융 활동을 목표로 설계 제공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주장하였다(Kozup and Hogarth, 2008; Hathaway and Khatiwada, 2008). Bernanke(2011)는 자신의 금융 필요성과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금융 목적을 충족하는 금융교육을 강조하였다.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제

- 5) 2013년 명칭을 금융역량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미국은 금융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6) 청소년금융교육법(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2001년 제정, 경제교육법(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2004년에 제정하였다. 공교육을 중심으로 경제와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국제학업성취도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 대한 금융 이해력의 평가를 2012년부터 18개국(13개 OECD 회원국과 5개의 비회원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 시기로 실시되고 있다.

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며, 평생학습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주자문 외, 2014). 또한 경제교육을 경제학적 소양교육, 개인 금융교육, 기업가교육, 창업교육으로 분류하였다(손정식 외, 2009; 오영수, 2010; 최영준, 2012; 손정국 외, 2014). 일반인에 대한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김혜미(2020)의 연구에서는 잠재적 금융소비자인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과정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의 학교 금융교육의 비교 분석하여 대한민국 학교 금융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의 금융교육은 거주 기간 및 개인적 수준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관련은 일시적인 지원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사실상 어려우며, 취약계층에 대한 동정적인 자금지원은 오히려 이들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정원오 외, 2013). 또한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시혜가 아닌 약탈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제윤경, 2014). 신인석·남재현(2012)도 취약계층에게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자금이 지원될 경우 채무부담만 가중되어 오히려 자활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잘 살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적절한 지원은 높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의 맥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교육과 소비의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다문화가족은 71.9%에 달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다문화가족이 금융 관련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경제교육과 소비 중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교육은 절약에 대한 방법, 재테크, 금전 관리, 금융 관련 교육, 한국어교육의 순으로 조사되었다(박혜영 외, 2014). 볼다드바타 미치디마(2020)는 취약계층의 금융교육 문제점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의 접근성 강화 및 금융상품의 이해도 제고를 강조하였다. 취약계층을 노인, 다



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을 구분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비교적 측면에서 외국의 취약계층 대상 사례로 정부, 은행, 지역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박경희, 2015).

한진수(2018)의 연구에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일반 성인 평균보다 낮았는데, 특히 금융지식 영역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통해서 탈북민이 가장 낮게 나타나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재봉(2016)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금융수요 및 마이크로 금융을 통한 금융포용에 관한 연구를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금융수요 계층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어떤 교육적 접근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구성원이다. 만약 다문화가족이 금융에 대한 무지로 인해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는 상황을 간과한다면 향후 사회적 비용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교육 인적자원 부족에 대한 연구는 주요 지자체에서 통역사들이 근무하며 다문화가족·외국인들의 일상생활 등에 통역도움을 주고 있으나, 금융거래 시 통역사들의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통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통역사에 대한 금융교육을 정례화하고 보다 경제지식이 풍부한 전문통역사를 양성 및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외국인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파하도록 하면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볼다드바타 미치디마, 2020).

박경희(2015)는 다문화가족 10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강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해 부족이 10명 중 4명이나 응답하였으며, 이는 한국어든 모국어이든 언어소통이 요구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OECD(2005)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금융교육을 접하고 나면 저축 수준의 향상, 주택구입 및

자산 구축으로 연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문화가족 금융교육 개발 활성화의 중요성에 의의를 둔다.

#### 4. 결론

앞에서 주지하였듯이 사회적 가치를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대상 다문화 금융교육 이해강사 양성과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양성과정은 향후 일자리 창출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산의 글로벌 도시 브랜딩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의 한국사회이해의 시간을 기존의 기본(영주권) 및 심화(국적취득) 70시간에서 시간을 더 추가해서 금융교육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금융교육 관련 내용 시간이 추가된다면 한국사회이해 과정을 강의할 수 있는 조건인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교과과정에도 금융교육 관련 교과목도 추가되어야 한다. 2021년 현재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전공교과과정은 이민정책 및 법제, 국제이주, 사회통합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분이며, 금융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교과과정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금융교육에 대한 니즈(Neds)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은행이 금융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부산지역의 관련 기관과의 금융교육 협업을 통한 AII-IN-ONE 시스템도 가능하게 될 수 있다. 한국은 일부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시적이며, 단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은 관련 기관

에서 일회성으로 진행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이 운영되다보니 사회적 가치 실현은 전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은행의 지방에서는 최초로 금융박물관 건립 및 찾아가는 금융교육, 체험 금융교육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게다가 COVID-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미흡할 수밖에 없다. 향후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면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비대면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표준 매뉴얼이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것에 기대를 둔다.

## 참고문헌

- 강순화(2015). 메가이벤트 개최지의 사회자본과사회적 가치, 공동체의식 및 협력의사 간의 영향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2017). 지역경제교육센터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미리·김시월(2011).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및 금융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2호, 1-28쪽.
- 김민정(2020), 다문화가족 대상 금융소비자교육,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98-116쪽.
- 김혜미(2020). 잠재적 금융소비자인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과정에 관한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류창수(2019). 신촌 박스퀘어의 사회적 가치와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58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63-275쪽
- 박경희 (2015).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영·김시월 (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금융경제 관련 소비자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ing Review> 7-2호.
- 방혜영 (2010). 금융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기구 및 미·영의 금융교육전략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블드바타 미치디마 (2020). 취약계층 금융교육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임 외(2020). 코로나 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 손정국·성희활 (2014). 교육에서 자문으로'의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 <증권법연구> 15-1호. 357-400쪽.
- 손정식 외 (2009). 국내외 경제교육 현황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경제교육학회.
- 이미숙·최외출(2011). 단체참여와 사회자본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방자치학회> 13-2호, 25-46쪽.
- 이재봉(2016). 다문화가정의 금융수요와 Micro Finance를 통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현(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기술, KISTEP 온라인포럼.
- 정성모(2015).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과 디자인융합 프로그램의 시사점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34호, 한국디자인지식학회, 75-84쪽.

- 조호현(2020). 서비스 생태시스템 관점에서의 비대면서비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9-1호.
- 최영준(2012). 베이비부머를 위한 경제교육 방향 탐색, <경제교육 연구> 19-1호. 123-145쪽.
- 최윤정 외(2020).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다: 유망기술사업기회 10선, KISTI 기술사업화 분석 리포트, 1-416쪽.
- 한진수(2018), 2015 개정 금융교육 교육과정의 분석과 개선안 모색, <금융감독 연구> 5-1호, 금융감독원, 39-66쪽.
- Bernanke, B. S. (2011). Statement of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t a hearing conducted by the Subcommittee on Oversight of Government Management, *the Federal Workforce,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of th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 Hathaway, I. and S. Khatiwada (2008). Do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Work?,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Working Paper* 08-20.
- Mele, C., Nenonen, S. Pels, J. Stobacka, K., Nariswari, A., and Kaartemo., V.(2018). “Shaping Service Ecosystems: Exploring the Dark Side of Agency,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29-4.
- Kozup, J. and J. M. Hogarth (2008). Financial Literacy, Public Policy, and Consumer’s Self-Protection More Questions, Fewer Answer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2(2), 127-136.
- OECD(2005a),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Analysis of Issues and Policies. *Paris: OECD Publishing.*
- Schmader, S. W.(1997). Introduction, *Managing Volunteers*, Ed.

Schmader, S. W., etal. Port Angeles, *Washington: International Festivals and Events Association*

<기타>

금융감독원(2018), 2018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사회통합프로그램 [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

BNK금융그룹 행복한 BNK [http:// www. happybnk. co. kr /User](http://www.happybnk.co.kr/User)

한국은행 경제연구원(2020.01.07.)검색 <https://www.bok.or.kr/portal/submain/submain/fnncSystem.do?viewType=SUBMAIN&menuNo=200001>.

필자 소개

성 명 : 권영은

소 속 : 동아대학교

주 소 : 부산광역시 진구 새싹로 경동타워오피스텔 603

전화번호 : 01094269168

전자우편 : dkxpsp43@naver.com

투고일: 2021. 10. 20 / 심사일: 2021. 11. 19 / 심사완료일: 2021. 11. 26